

“1일 400t 쓰레기 어디로?”…광주 vs 나주 공방



광주지법 15일 행정소송 선고…나주SRF 시설 가동 여부 결정
나주시민들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한 판결 호소” 탄원
광주시 “나주시 SRF가동 허가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 호소

광주권 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품연료(SRF)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나주혁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할 법원 선고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와 나주시민간 호소문과 탄원서 공방이 이어졌다.

6일 나주열병합발전소 SRF사용금지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남 광주지방법원(제1행정부 민사합의과)을 방문해 나주시민 등 1만595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접수했다.

탄원서는 나주SRF발전소 사업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제기한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가 오는 15일 이뤄질 가운데 결과에 따라 발전소 가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출됐다.

앞서 지난달 19일 광주시와 5개 구청은 “나주시가 발전소 사업개시 수리를 반려해 현재까지 광주시 광역위생매립장에 약 50만t의 쓰레기가 직매립되면서 매립장 수명이 4년 이상 단축되고, 막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추가발생, 민간투자 사업자 파산이 우려된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빠른 시일 내에

판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핵심은?

광주시와 나주시 간 ‘쓰레기 처리 떠넘기기’ 갈등으로 비화한 해당 발전소는 지역난방공사가 나주혁신도시에 집단연원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건설했다.

하지만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한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의 집단 저항에 부딪혀 2017년과 2020년 2차례 이뤄질 시험가동을 제외하면 3년 넘도록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발전소 가동을 위해 필요한 1일 440t(8t 트럭 55대 분량)에 달하는 생활쓰레기 연료(SRF)의 80%가 넘는 원재료가 광주권 생활쓰레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이다.

광주시는 시민 반발로 ‘상무쓰레기 소각장’을 폐쇄한 이후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2018년 6월 광주 남구 양과동 쓰레기 매립지 인근에 소각로와 발전시설을 제외한 ‘청정빛고을(썩)이라는 SRF(생활쓰레기 고품폐기물 연료) 생산시설 만 준공했다. 이 당시 소각로가 제외된 것은 역시 시민 반발 때문이었다.



이처럼 광주시가 자체 쓰레기 소각시설을 단 한 곳도 설치하지 않은 가운데 사실상 생활쓰레기 전량을 ‘SRF’로 전환해 나주혁신도시로 반출·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나주시민들이 ‘이기적인 쓰레기 행정이라고 크게 반발하는 것도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나주시민들은 ‘주민수용조사 미흡’,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환경 주권’ 등을 이유로 SRF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발전소 연료를 SRF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민들 ‘탄원서’ 통해 무엇을 주장하는가?

나주시민과 SRF정책에 반대하는 연대 탄원인 1만5950명은 “주민수용성(연료선택권)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시설에 대해, 나주시가 공의 우선에 가치를 두고

‘사업개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환경과 생명 존중의 시대정신에 부합한 행정처분이었”고 밝혔다.

탄원인들은 “SRF 시설이 가동된다는 사전 정보도 없이 입주해 고통 받는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을 볼 때 대한민국 쓰레기 처리 행정의 단면을 보여 준다”며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도 줄이고 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만큼 속의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쓰레기 처리 시설의 갈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환경 주권 차원에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반드시 수립돼야 하고, 특정 지역에 힘이 밀려 차별받는 것을 막아야 하며,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해야 모두가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동채본부

병원 문손잡이·책상서도 바이러스 검출…순천시 ‘비상’

고령층 감염등 4차 대유행 기로
허석 순천시장 “개인 위생 중요”
“2단계 잘 지켜 위기 벗어나자”

작년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큰 고통을 받았던 전남 순천시가 올해 봄철 고령층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또다시 대유행의 기로에서 비상이 걸렸다.

특히 순천시는 최초로 고령층 감염자가 자주 찾았던 곳의 문손잡이와 책상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 감염 소식이 지난 4일 이후 의원을 찾거나 의료기기 체험장을 방문한 70~80대 고령층 등 19명이 감염되는 등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령층이 많이 찾는 의료기기 체험장, 목욕장 등 집단감염 및 확산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동선과 확진자의 나이, 장소가 방역 당국과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첫 확진은 발열과 전신 무기력증, 호흡곤란 증상을 느낀 80대가 순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면서 알려졌다. 병원 격리실 입원

중 확진되자 방역 당국의 즉각적인 역학조사가 진행됐으며 4일과 5일, 6일 순천시민 18명과 여수시민 1명 등 19명이 감염됐다.

모두 같은 의원과 의료기기 체험장을 방문했거나, 가족들로 이어진 전파였다.

순천시는 지난해 8월과 11월 등 대유행을 겪으면서 운동시설 및 사우나 등 ‘코로나19’ 취약에 대해 학습한 바 있으나 고령층 위주의 확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번 확산세에 접어들 경우 생명을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인식 탓에 고령층이 많이 찾는 병·의원과 의료기기 체험장 등은 늘 주시대의

상이었다.

이 때문에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해 8월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허 시장은 또 책상과 손잡이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대의 위기라고 봤다.

4일 이후 확진자 급증도 문제지만 순천에서 최초로 병원 책상, 사무실 문손잡이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허 시장은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지만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11일까지 발령한 강화된 2단계 조치를 철저히 지켜 코로나 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영농철 인력수급 비상’

전남농협, 농촌일손돕기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농철을 맞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일손돕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남농협은 6일 영농인력 부족으로 비상이 걸린 함평 양과 수확농가를 찾아 조생양파수확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범국민적인 농촌일손돕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영농지원 발대식’도 이날 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유관기관과 봉사단체 등과 합동일손돕기, 농촌마을 환경정비, 농기계 수리봉사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슬기로운
집콕생활!

위드 코로나 시대! 올해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즐겨주세요

온라인

2021 영암왕인문화축제

On-Line Yeongam Wangin Culture Festival 2021

4. 1. 목 ~ 4. 16. 금

www.왕인문화축제.com

YouTube 영암왕인TV

왕인ONTACT

- 특집 다큐 ‘왕인박사 랜선으로 일본가요!’
- 왕인박사 학술강연회
- 제31회 왕인박사 추모 한시지상백일장
- 천인릴레이 천인천자문
- 집콕놀이! 왕인키트
- 집콕! 챌린지
- 집콕ON! 글로벌 왕인 홍보단
- 왕인박사 추모 헌다례와 문화 강연

기찬영암ONTACT

- 유튜버와 떠나는 3인 3색 랜선 영암여행
- 기찬영암 브이로그
- 영암여행 온라인 사진·영상 공모전
- 혜택 가득! 기찬영암 라이브 커머스
- 온라인 영암 마켓
- 온택트 영암예술무대
- 온택트 개막콘서트
- 공개방송 영암온에어 ‘즐거운 오후 2시’ (11개 읍·면)
- 온택트 폐막행사

영암군
YEONGAM-GUN

주관 |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문의전화 | 061-470-2347